

# 터전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응급상황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방과후 교사회 작성  
2019년 4월 27일 봄 교사대회

## ※ 119 (신고 시 요령) 도움요청

1. 위치
2. 응급상황 내용(심장발작, 사고 등)
3. 도움이 필요한 환자 수
4. 환자의 상태
5. 환자에게 처치한 응급처치 내용(심폐소생술 등)
6. 다른 질문이 없는 지 확인(“끊어도 되겠습니까?”)
7. 통화를 마친 후에는 119 오기 전까지 휴대전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응급이송, 응급처치지도, 응급이송지도, 질병 상담 병원 안내는 119 또는 1339

## ※ 119에 응급구조 차량 이송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을 경우
2. 병원 이송도중 증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송도중 지속적인 의료처치가 필요한 경우
4. 병원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경우
5. 기타 판단이 모호할 경우는 119에 전화 문의

# 1. 실내 사례정리

## 1. 실내 화상: 글루건, 요리활동시 또는 국그릇을 엮은 경우

### 1) 화상부위가 작은 경우

- 1도 화상: 흐르는 찬물에 10분 이상 화기를 빼준 뒤 화상연고를 발라준다.
- 2도 화상(물집 잡히는 경우) : 화기를 빼준 뒤 병원치료를 받게 한다.

### 2) 화상부위가 넓은 경우(국물을 엮거나 뜨거운 냄비에 피부가 닿았을 경우)

옷이나 장신구 제거후 흐르는 물에 화기 제거한다. 연고를 바른 후 1시간 정도 피부의 붓기를 지켜본 후 병원을 가야할지 판단한다.

### 3) 사후처리

1도 화상의 경우는 응급처치를 한 후 하원시 아મા한테 상황설명을 한다. 2도 화상의 경우와 병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응급처치를 한 후 아마와 바로 통화한 후 치료계획을 결정한다. 언제 누구와 병원방문을 동원할지.

### 4) 사전교육

- 터전별로 구체적인 글구건 사용규칙을 정한다. 예를 들면, 장갑착용, 글구건 사용시 교사가 함께 있는 경우에 사용, 글구건 거치대 사용, 사용 후 전원끄기, 고학년의 경우 사용전후 교사에게 알림 등
- 요리활동 시 장난치지 않는다. 긴팔입기 또는 토시착용.

## 2. 문에 손가락, 발가락이 찍히거나 부딪힌 경우

### 1) 응급처치:

- 일단 손가락 발가락이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한다.
- 문에 찍혀서 타박상으로 상처가 나고 빨강게 파랑게 멍들면 피부에 면전을 댄 후 각얼음으로 냉찜질 해준다.
- 상처는 소독후 연고를 발라준다.
- 1시간정도 지난 후 부으면 병원에 가서 골절됐는지 등 확인해야 한다.

### 2) 사후처리

- 골절이나 뼈에 금이 간 경우로 의심되는 경우는 바로 아마와 소통한 후 병원방문 계획을 세운다.

### 3) 사전교육

- 활동하는 경우가 아니면 문을 열어둔다.
- 문 여닫는 경우, 문으로 장난치지 않기 등 수시로 이야기하기



## 2. 운동장

### \* 10가지 상황

- 놀이기구(구름사다리,철봉 등) 에서 떨어진 상황
- 떨어지면서 허를 깨물면서 찢어짐 (입 안)
  - > 119에 전화해서 대형병원으로
- 축구하다가 골대에 부딪힘
- 넘어지면서 찰과상 (운동장 모래 등) 타박상
- 넘어져서 골절
- 눈에 모래가 들어가는 경우
- 머리 찢어지는 경우
- 공에 맞는 경우 (야구공/축구)
- 발을 접지르는 경우
- 열사병

### 선택

1. 놀이기구(구름사다리, 철봉 등) 에서 떨어진 상황
  - 머리를 다쳤을 때
2. 골절, 타박상 등 의심되는 경우

### \*\* 사전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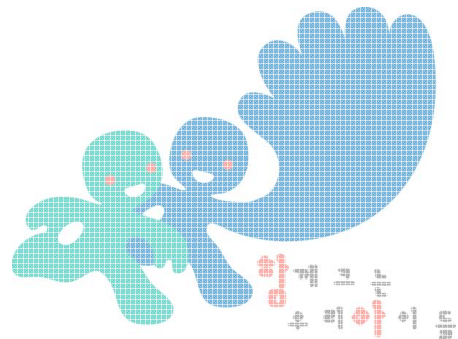
1. 주로 노는 장소의 경우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약속을 아이들과 같이 정한다.
  - 예시)  
정글짐은 자기 키가 높은 곳보다 올라가지 않는다 등  
이동하는 중에 장난치지 않는다 등
2. 터전 상황에 따라 놀잇감에 따른 구체적인 약속을 아이들과 같이 정한다.
  - 예시) 나무칼은 자기 팔 이상으로 긴 것을 가지지 않는다/휘두르지 않는다
  - 공은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이동한다.
3. 미리 교사간의 합의가 중요하다.
4. 놀이 중에는 아이들이 흥분상태에서 부주의해지지 않도록 교사가 환기시켜준다
  - 예시) 좀 천천히 해라/위험할 것 같아/조심해 등
5.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교사에게 알려거나, 주변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교사를 부른다.
  - 머리를 부딪힌 경우, 그 외에도 세계 부딪히거나 한 경우 피가 나지 않아도 교사에게 반드시 말해야 한다고 알려준다.

## \* 응급상황 대처

1. 상처부위 확인한다. (옷 안까지 본다)
2. 넘어지거나 부딪힌 부위를 확인하고
  - 머리의 경우 찢어졌을 때 출혈정도에 따라 지혈한다.
  - 의식확인,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게 질문한다.
  - 다른 신체부위의 경우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한다.
3. 동료교사에게 연락하고
4. 부모에게 연락하고
5. 주변아이들을 안정시킨 후
  - 동료교사가 와서 다른 아이들을 안전하게 인솔할 수 있도록 인계하거나
  - 상황이 그렇지 못 할 경우 그 중에 최고학년 아이에게 아이들을 안전하게 모아서 기다릴 수 있도록 한다.
6. 다른 교사들은 어느 병원으로 이송해야할지 확인 하고 부모 동의 하에 움직인다.
7. 응급상황의 경우 119에 전화하여 상담 후 안내에 따라 대처한다.
8.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 냉찜질 해준다.
  - 붓거나, 멍들거나, 더 아플 경우 꼭 병원에 가라고 얘기해준다.
  - 부모에게 이후 치료에 대한 방법을 논의한다 (병원에 갈지 여부 등을 묻는다)
  - 하원할 때 부모에게 말해준다. 부모를 만나지 못할 경우 전화로 상황을 알린다.

## \*\* 사후처리

1. 상황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 기록하고 교사회와 공유한다.
2. 운영위에 보고한다. (다친 아이의 부모 동의 하에 조합 카페에 올리기도 한다)
3. 아이들과 다 같이 모여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약속을 새로 정하거나 환기한다.
4. 치료 경과에 대해 이후 부모와 소통한다.



## 3. 나들이

### \* 터전에서 벗어날 때의 약속

혼자 다니지 않고 두 명 이상 함께 다닌다. 나들이 장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화장실 갈 때는 교사에게 이야기하고, 교사나 친구와 같이 간다.  
교사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다니거나 외운다.

### \* 길을 잃었을 때, 교사나 아마를 잃어버렸을 때의 약속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다.  
교사나 아마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가지 않는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교사의 전화번호/ \*\*\* 방과후로 전화해 달라고 부탁한다.

### \* 도로에서의 약속

차도에서 뛰거나 장난치지 않는다.  
건널목, 갈림길 나오면 멈춰서 기다린다.  
길이 꺾이는 곳이 나오면 멈춰서 기다린다.  
교사보다 앞서가더라도 교사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공을 던지거나 통기면서 다니지 않는다.  
차 뒤로 가지 않기.

### \* 대중교통 이용 시 약속

- 지하철 이용 시  
항상 맨 앞 칸을 탄다.  
급하게 뛰어서 타지 않는다.  
교사는 맨 먼저 타고, 맨 마지막에 내린다.  
내릴 때 짝과 함께 내린다.  
교사가 못 내린 경우 내린 위치에서 기다린다.  
타지 못한 경우 그 자리에서 기다린다.

### \* 버스 이용 시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버스에 다가간다.  
교사는 맨 마지막에 타고, 맨 먼저 내린다.  
버스 안에서는 자리에 앉는다. 자리가 없을 때는 손잡이를 꼭 잡고 선다.  
버스 안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버스에서 내린 후에는 버스가 떠난 다음에 반대쪽으로 이동한다.  
(버스가 도착하거나 출발하기 전에 버스의 앞이나 뒤로 움직이는 것은 사고의 위험이 크다.  
따라서 버스를 기다릴 때는 인도에서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게 한다.)

## 4. 물놀이

### \* 발생할 수 있는 상황

1. 뽀족한 바위나 따개비 또는 부작(?) 생물이 있을 시  
신발이 슬리퍼나 샌들일 때 발에 부상
2. 물의 깊이와 높낮이가 다른 때 ->대책: 구명조끼 착용
3. 물에서 노는 아이들의 체온 관리
4. 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놀며 밀접한 관심과 확인이 필요하다.  
-> 위험한 장소와 신체의 변화, 위험한 놀이의 확인
5. 준비되지 않은 장소에서 갑작스러운 장난
6. 발에 쥐가 날 때
7. 음식 섭취 후 바로 물놀이.
8. 준비운동을 안 했을 때
9. 물에서 사는 벌레에 의해 물림. 예) 거머리, 해파리
10. 물놀이 장소에서 외상이 발생할 때

### \* 물에 빠졌을 때의 상황에 대한 사전교육과 대처

- 물놀이 장소 주위 환경과 수심과 수온 확인
  -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물놀이 안전교육을 반복적으로 한다.
  - 물놀이 복장, 구명조끼 등은 반드시 챙긴다.
  - 물놀이에 대한 규칙과 약속을 터전별로 정하는 것이 좋다.
  - 항목을 정해서 아이들과 적어보고 상황에 대해 나눠본다.
- 예) 학년의 긴급과제로 시험을 보기로 한다/o, x 게임을 한다.

### \* 상황에 대한 대처

- 한 교사가 구조하고 다른 교사는 구조의 도움과 119에 전화한다.
- 예) 구조하러 가는 교사에게 튜브를 전달해주고 수건 등을 전달해 준다.
- 물 밖으로 나온 아이
- 위급한 상태일 때 119 신고 후 부모에게 연락  
위급한 상황이 아닐 때 물 밖으로 나와서 체온 유지를 위한 조치  
아이에게 불편한 점에 대해 체크하고 부모님께 연락  
모든 아이들과 발생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한다.

### \* 외상에 대한 대처

- 응급키트를 꼼꼼히 챙긴다.
  - 장소에 대한 면밀한 확인과 대비를 한다.
- 예) 물놀이 장소에서 미끄러운 곳을 확인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한다.  
바닥에 위험한 요소가 있을 때 아쿠아슈즈를 준비하게 한다.



# 5. 들살이 상황

## 1. 고열 (38도 부터)

### \* 사전교육

- 교사회는 답사 때 숙소와 가까운 병원, 보건소, 약국, 소방서의 위치와 거리, 이동 수단을 확인
- 숙소에서 환자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확인
- 응급상황 담당 교사를 지정
- 들살이 장소 도착 후 아이들과 주변상황 및 안전에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활동 전 간단한 안내를 한다.

### \* 응급상황대처

-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다. (열체크 38도~)
- 아이에게 상황을 확인 (식사 배변 컨디션 등)
- 아마에게 전화 연락 (해열제, 투약 여부 확인, 시간, 체온 전달)
- 공간을 분리해 쉴 수 있는 환경 조성
- 겉옷 탈의, 찜질, 냉시트, 해열제 등 처치를 한다.  
(찜질= 미지근한 물을 수건에 적신 상태로 온 몸을 닦아 준다)
- 해열제 투약 후 1시간 정도 경과 후 상태를 체크한다.
- 해열제 투약하지 않은 경우 최초 확인 후 처치를 하고 1시간마다 상태를 체크한다.
- 상태 체크 후 아마에게 전달 한다.
-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체크와 연락, 처치를 반복한다.

## 2. 골절

### \*응급상황 대처

- 상황에 대한 판단
- 1. 직접 이동이 어려운 경우 교사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119나 질병관리센터 연락 후 증상확인.
- 2. 주변 의료기관이 확보된 경우 병원 진료를 우선한다.
- 3. 부모연락
- 상황 공유 및 초기 조치 상황 공유
- 진료 후 상황 공유

# 6. 대중교통 나들이

## \* 발생할 수 있는 상황

1. 지하철 틈에 끼거나 빠졌을 때	2. 버스 안에서 넘어질 때
3. 버스에서 내리다가 넘어졌을 때	4. 버스나 지하철에 아이를 두고 내렸을 때
5. 손이 틈이나 봉에 끼었을 때	6. 아이가 혼자 먼저 내렸을 때
7. 인도가 없는 차도를 걸을 때	8. 교사가 다쳤을 때
9. 버스 창문에 손 내밀었을 때 & 다쳤을 때 -> 사전에 혼내자.	
10. 에스컬레이터에서 굴렀을 때 > 사전에 하면 안된다고 말하고 보이면 바로 혼내자.	
11. 버스에서 아이가 토하기 시작했을 때 -> 봉지(특히 이중지퍼백 좋음) 미리 준비	

### 상황1. 교사가 다쳤을 때

#### 사전교육

- 나들이 전에 “교사가 다칠 수 있고 너희가 도와줘야 해” 이야기 반드시 하기
- 교사회가 교사가 다쳤을 시 메뉴얼 만들고 조합과 공유하기

#### 응급대처

- 교사가 아마(운영위원장), 동료교사에게 알린다.
- 연락받은 교사나 아마는 본인이 오거나 올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 해당 교사는 아이들을 안심시키고 급하게 이동하지 않고 기다린다.  
(119가 오는 정도의 긴급상황이면 아이들을 안전하게..인계해주겠지?)

#### 사후처리

- 산재처리 한다.
- 조합에 알리고 아마들이 아이들을 집에서 안심시키도록 한다.

**Tip**

- 대중교통 이용시  
서로를 챙길 수 있는  
짜공을 정한다.
- 지하철은 가급적  
1번칸을 탄다.

### 상황 2. 버스에 아이를 두고 내렸을 때

#### 사전교육

- 애들한테 대중교통에서 내리지 못했음을 알았을 때 기사아저씨께 알리고 버스 자리에서 기다리도록 한다.
- 주변의 어른에게 부탁해서 교사나 부모에게 전화하도록 한다.
- 지하철은 내려서 역무원을 불러달라고 요청한다.
- 아마들과 나들이 안전 약속을 공유하고 잃어버려서 전화가 오면 아이를 안심시키고 전화가 오면 교사에게 바로 알려서 찾을 수 있게 한다.

#### 응급대처

1. 교사는 놀라고 당황하지 않는다.
2.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아이를 찾는다.

#### 사후대처

1. 아이가 충분히 안심될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누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 동료교사에게 알리고 상황을 함께 정리한다.
3. 해당 부모에게 사과하고, 발생했던 일의 경과와 이후 대비에대한 내용을 전체 조합원과 공유한다.





## 7. 자전거 사고

### 1. 경사진곳(내리막길&흙길&과속)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응급상황대처 : 안전이 확보되지않는 상황에서는 끌고간다(끌바!!)

### 2. 자전거 도로를 탈때 발생하는사고(인도 와 자전거 도로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일어나는 사고)

### 3. 포장이 되지 않는곳(코너)에서의 사고

응급상황대처 : 사전답사

### 4. 안전모를 안 써서 일어날수있는 사고

응급상황대처 : 안전모 착용 방법 사전교육

### 5. 같이 자전거를 탔을 때 속도 조절이 되지 않아 일어 날 수 있는 사고

응급상황대처 : 미리 아이들 체력상태 체크 및 수신호 소통체계교육

### 6. 바퀴가 빠지거나 브레이크가 안들 때(자전거 사전 점검이 안 돼서 일어나는 사고)

응급상황대처 : 자전거 점검 필수

### 7.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탈 때 일어날 수 있는사고

응급상황대처 : 그런 아이들 보면 선생님께 이야기 하라고 함

### 8.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사람과 부딪힌 경우

### 9. 모뎀별 자전거를 탈 때 중간에 타는 아이가 넘어진 경우

응급상황대처 : 사전 교육으로 다른 아이들 도로 밖으로 빼고 어른이 처린한다 (미리사전 교육)

### 10. 모뎀별 자전거 탈 때 하는 팔아서 일어 날 수 있는 사고